

14 수능 B형

(14수능 B형을 통한 모의평가의 흐름 반영과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가 벗어나게 되었을 때의 대응책을 중심으로)

결국, 일관성 있게 읽는가의 싸움이였다.

발문을 통한 지문구조의 예측 가능했음! (#20, #21)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B형 <인문>

[1문단]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우리의 상식이다. 위가 텅 비어 있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현상, 두려움을 느끼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현상 등이 그런 예이다. 문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이질성과 관련성이라는 두 가지 상식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곧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

[2문단] 먼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작용론이 있다.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가슴이 더 빨리 뛰는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서양 근세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3문단] 이에 비해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되지 않으며,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나기 때문이다.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든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다는 생각, 즉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근대 과학의 기본 전제이다. 평행론은 이 전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4문단]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두 가지 상식 사이의 조화를 설명하려는 이원론이다. 이에 따르면 ⊕ 육체적 사건은 ⊖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도 된다. 하지만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 현상일 뿐,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사건이 아무 일도 못하면서 따라 나올 뿐이라는 주장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정신적 사건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5문단]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을 구분하면서 그 둘이 관련 있음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은 모두 각자의 문제점에 봉착한다. 그래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두 사건이 문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라는 동일론, 곧 심신 일원론이 제기된다. 과학의 발달로 그동안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게 된 것이다.)

수능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대개의 경우, 지문에서 “상식”이 언급되는 경우, 해당 상식은 ‘옳지 않다’의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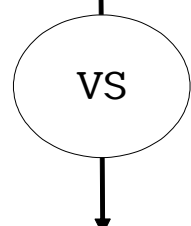
따라서 “정신적 사건과 물질적 사건은 구분된다”는 우리의 상식이 실제로는 옳지 않다는 방향으로 글이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문제 상황”을 제시했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했고, “다양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1 : 상호작용론
 다양한 방법 2 : 평행론
 다양한 방법 3 : 부수 현상론

=> 셋 모두 “이원론”
 => 세 방법 모두 접속사 “그러나”를 중심으로 “문제”, 즉 “단점”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남.
 => 대표적으로 15학년도 6월 B형 [인문] 정합설 지문과 동일한 지문구조.



위의 세 가지 이론들이 모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신 일원론” 등장.
 => ‘정신적 사건은 사실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
 => 즉, 우리의 상식(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된다)은 옳지 않았음!

“심신 일원론” VS “심신 이원론”
 => (대조 관계)
 => 눈에 명확히 보이는 차이점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공통점”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 14학년도 6월 B, 9월 B [인문] 참조!

19.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신 이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

==> (★아주 좋은 선지★) 수능국어가 지향하는 “글 읽기 방식”에 대해서 어렵פות이 제시하고 있는 선지입니다. 1문단을 보시면 “심신 이원론은 그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심신 이원론이 “두 종류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는 우리의 “상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는 것을 “발아가며” 읽었을 때 매우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다양한 방법’은 상호 작용론, 평행론, 부수 현상론으로 쪼개지게 되죠. 즉, 이 세 가지 이론은 우리의 상식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 ②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 2문단을 보시면 “이는 위가 텅 비었다는 육체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 고통을 느낀다는 정신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나고,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 육체적 사건이 결과로 일어난다고 설명한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평행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육체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다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 ④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론이므로 적절합니다.

- 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준다.

==> 동일론은 애초에 “정신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므로 부적절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에 “심신 이원론은 우리의 상식을 지지하는 이론”, “심신 일원론은 우리의 상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구분하여 읽었으므로 쉽게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21. '평행론'과 '동일론'에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 "공통점"을 묻는 문항입니다.

=> 지문의 구조가 "대조 관계"를 띠고 있었으므로 "공통점"을 묻는 방식이 등장했음을 기억합시다!

①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동일론'에서는 애초에 정신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부적절**합니다.

②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

==> '동일론'에서는 애초에 정신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①번과 마찬가지로 논리를 통해 **부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 '평행론'의 경우에는 3문단의 8~9번째 줄에서 선지와 동일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행론의 관점에서는 적절합니다. '동일론'의 경우, 정신적 사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과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가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역시 적절합니다. (정답)

④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동일론'의 관점에서는 애초에 정신적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①,②와 동일한 논리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

==> '동일론'의 관점에서 정신적 사건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저도 지겹습니다-_-)

21. <보기>는 ‘부수 현상론’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과 ㉡에 대응하는 것을 ㉢~㉤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기>

㉢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 조수 간만이 나타
 나기도 하고 보름달, 초승달과 같이 ㉤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한다. 이때 조수 간만은 다시 개펄의 형성 등과 같은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반면에 달의 모양은 세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
서 생겨난 과정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조수 간만이 나타남, 달의
 모양이 달리 보이기도 함”
 => 상대적인 위치 : 육체적 사건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된다.”
 => 조수 간만 : 육체적 사건

“~일 뿐, 어떠한 인과적 역할도 하지 않는다.”
 => 달의 모양 : 정신적 사건

㉠ ‘육체적 사건’

㉡ ‘정신적 사건’

- | | | | |
|---|---|---|------|
| ① | ㉢ | ㉣ | |
| ② | ㉣ | ㉤ | (정답)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이 문항도 도무지 왜 3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문항이었습니다. 지문과 <보기> 간의 대응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찾
 을 수 있었으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 [사회] 지문은 A/B 공통이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A형 자료에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발문을 통한 지문구조의 예측은 불가능했음! - “비례/반비례”의 향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B형 <과학>

[1문단] 우주에서 지구의 북극을 내려다보면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자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상적인 힘을 **전향력**이라 한다.

[2문단] 전향력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구 모양인 지구의 둘레는 적도가 가장 길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짧아진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3문단] 적도 상의 특정 지점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력이나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한다. 적도 상의 발사 지점은 약 1,6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는 발사 속력 외에 약 1,600km/h로 동쪽으로 진행되는 속력을 동시에 갖게 된다. 한편 북위 30도 지점은 약 1,400km/h의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다. 목표 지점은 발사 지점보다 약 **200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지구 표면의 발사 지점에서 보면, 발사된 물체의 이동 경로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북쪽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타나게 된다.

[4문단] 이번에는 북위 30도에서 자전 속력이 약 800km/h인 북위 60도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같은 실험**을 실행한다고 하자. 두 지점의 자전하는 속력의 차이는 약 **600km/h**이므로 이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를 향해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 결국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5문단] 전향력의 크기는 (위도뿐만 아니라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과도 관련)이 있다.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지며, 지표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

<비례-반비례 관계>

- 지구의 둘레 $\propto \frac{1}{\text{위도}}$
-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일정
- 자전하는 속력 $\propto \frac{1}{\text{위도}}$

적도 : 1600km/h로 자전
 북위 30도 : 1400km/h로 자전
 => “200km/h의 속력차”
 => 발사된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정보다 더 동쪽(북쪽 방향의 오른쪽)에 떨어짐.

“동일한 실험의 반복”

북위 30도 : 1400km/h로 자전
 북위 60도 : 800km/h로 자전
 => “600km/h의 속력차”
 => 발사된 물체는 적도에서 북위 30도로 발사했을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떨어짐.

<= “비례-반비례 관계”

- 편향되는 정도 \propto 위도
- : 그래서 고위도에서 더 커짐.
- 자전 속력의 차이 \propto 위도
- :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짐.

전향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2
 : 물체의 이동하는 속력

<비례-반비례 관계>

: 전향력 \propto 물체의 이동 속력

<문제를 들어가기 전>

: 지문 내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지문의 구조”는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문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비례-반비례 관계”를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3문단과 4문단의 실험 내용이 동일했으므로 글을 읽는 것이 그리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

==> 지구 어디에서라도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②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에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③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빠르다.

==>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하는 속력은 느려지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④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동쪽에 떨어진다.

==> (매우 훌륭한 선지!)

==> 사실 해당 선지는 우리로 하여금 “**물체의 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고민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5문단을 보시면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이라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향력 실험은 두 경우 모두 “**북위를 향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해당 선지는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즉 “**남위를 향해**” 물체를 발사하는 경우입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5문단에 근거해 발사된 물체는 “**목표 지점보다 왼쪽**”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동쪽이 아닌 “**서쪽**”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③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확신이 없었던 학생들은 ④번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④번이 부적절한 선지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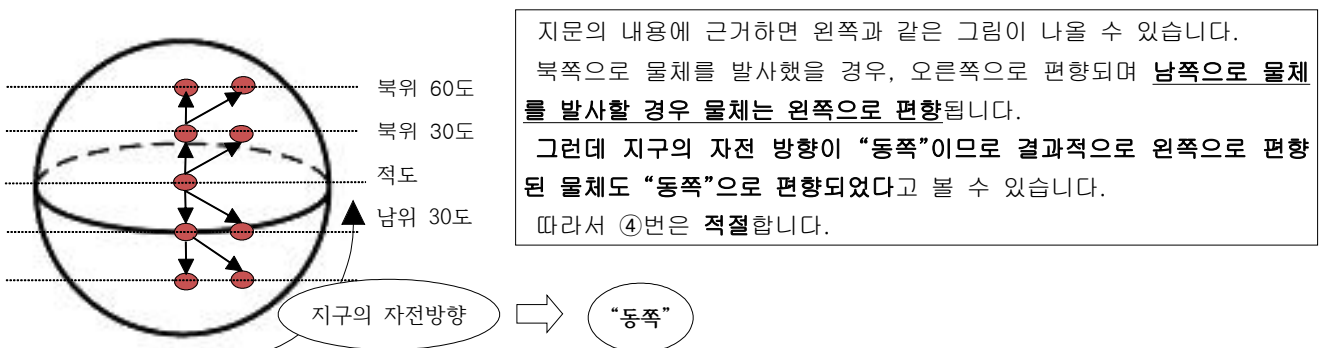
자, 그렇다면 이 선지를 통해 우리는 시험장에서 발생하게 될 2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③번이 확실히 틀렸으므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Good!^^)

2) “물체를 남쪽으로 발사했으므로 물체는 왼쪽으로 편향될 텐데,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동쪽**’과 ‘**왼쪽**’은 동일한 것인가?”라고 고민하기 시작 => 이 부분이 우리를 미치게 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문에서는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 즉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결국, 출제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동쪽과 왼쪽이 같은 개념인가?”를 고민하라고 해당 선지를 출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다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위와 같이 선지의 순서가 배치되어 있었다면 **결국 최선의 과정은 ③번이 확실히 답임을 인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가요??;) 사실 그만큼 ③번은 우리가 “충분히” 확신을 가질 만한 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③번과 ④번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③번에서 “고민”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애매하다면 일단 넘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든 선지를 넘어가더라도 정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애매한 선지를 넘어갔는데 확실한 정답이 눈에 보인다. (해당 문항과 같은 경우)
- 2) 애매한 선지를 제외하고 모두 확실하게 지워진다.
- 3) 애매한 선지를 넘어갔는데 결국 2개가 남았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한 선지가 등장하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1)과 2)로 정답이 결정되게끔 선지가 구성됩니다. 그런데 3)과 같은 경우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또 다시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 a. 버린다. (이 한 문항 때문에 내가 한 지문을 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 b. 이미 기출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를 “고민하게끔” 만들었던 경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법”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해결책 b는 사후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즉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특히 1등급 혹은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b의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상황들을 그간의 기출문제들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적절한 사고과정”을 다시 꺼내어 통째로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PS. “어떻게 동쪽이 왼쪽이 되지?”

=> **[동서남북]은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 결과 남반구에서 북반구를 향했을 경우와 북반구에서 남반구를 향했을 경우에서 방향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 실어 놓겠습니다.

=>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요!!

⑤ 우리나라의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의 이동 방향은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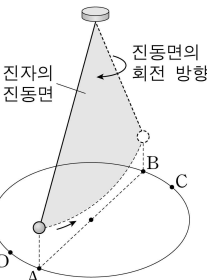
=> 운동하는 물체는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합니다.**

-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그 문제. 그 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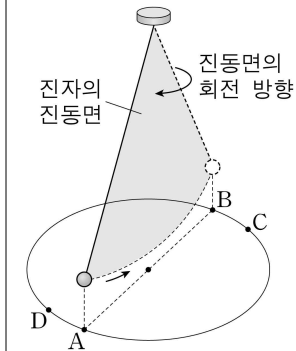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전향력은 1851년 프랑스의 과학자 푸코가 파리의 팡테옹 사원에서 실시한 진자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길이가 67m인 줄의 한쪽 끝을 천장에 고정하고 다른 쪽 끝에 28kg의 추를 매달아 진동시켰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추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전향력에 의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되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지문과의 대응지점>



- 지문의 발사 지점 <==> 그림의 A
 - 지문의 목표 지점 <==> 그림의 B
 - 지문의 실제 도달 지점 <==> 그림의 C
 - ⇒ B에서 C로 **“오른쪽(동쪽)으로”** 편향되었음.
 - 그림의 D는 지문과 대응할 지점이 없음 (지문에서 발사한 물체가 되돌아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
 - ⇒ **진자가 오른쪽으로 편향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현상.
- 지문과의 대응지점을 찾기는 어려움.

①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군.

==> <보기>의 실험에서 **진자가 “오른쪽으로” 편향되었으므로 해당 실험은 [북반구]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실험했을 때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므로 이전에 살펴보았던 “명제의 이”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남반구에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진자의 진동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함이 적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민하게끔” 만들었던 선지였습니다.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속도”가 “위도에 따른 지구의 자전 속도와 그에 따른 편향의 정도”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해서 보더라도 적절함을 고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역시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와 지문에서 대응시킬 만한 부분을 찾으려면 “주기”라는 단어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자전 주기”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해당 문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돕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북극과 남극에서는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동일”하고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묻더라도 북극과 남극에서는 그 정도가 “같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Q. 근데 “자전 주기”는 왜 언급했는가?)

=>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고 과정”입니다. 즉, “주기”라는 단어의 존재 때문에 지구의 “자전 주기”에도 주목했을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기에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사고과정은 위의 선지 ②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④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겠군.

==> “적도”에서는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가 0, 즉 “전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자가 편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때 출제자가 굳이 “동서 방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주목해 봅시다. 만일 적도 상에서 동서 방향이 아닌, “남북 방향”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적도에서 북위 방향으로, 혹은 남위 방향으로 물체를 발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운동하는 물체가 편향될 것이고 <보기>의 진자도 편향되어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출제자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본인들끼리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하게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선지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느껴보세요. 이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올해 6월 B형 [인문] 지문의 23번 문항에서도, 14학년도 6월 A형 [과학] 지문의 18번 문항에서도 이와 같은 출제자의 완벽한 문항 구성을 위한 노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찾아낸다면 Nice! 못 찾았다면 제 강의를 통해서라도 찾아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⑤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되겠군.

==> ①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남위 60도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 즉 [남반구]에서 해당 실험을 하게 될 경우 <보기>의 경우와 반대로 추는 “왼쪽”으로 편향될 것입니다. 역시나 “명제의 이”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 결과적으로 ②번을 제외한 모든 선지가 적절하므로 정답은 ②번입니다. 애매한 선지를 모두 지워나가고 남은 그 선지가 결국 정답이 되는 형식이었죠.

다음 페이지에서 왜 ②번이 부적절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②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겠군.**

==> “파리보다 고위도”라는 것은 “파리보다 더 북반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그 결과 진자가 “오른쪽으로 편향되는 정도”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 그렇다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와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속도는 어떠한 연관을 갖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 위에서도 언급했었던 것처럼 해당 선지를 완벽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선지 ③번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지 ③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③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겠군.

==> 사실, 우리는 해당 선지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북극과 남극”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지문의 무엇에 대응되어야 할까요?

==> “주기”라는 단어는 지문에서 “자전 주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지구의 자전”은 “회전한다”는 측면에서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와 대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도 지구의 자전 주기와 마찬가지로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논리적 비약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분명히 우리가 “주기”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었던 건 지문에서 “자전 주기”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생각이 틀렸다면, 평가원에서는 우리가 지문에서 근거할 수 없는 내용을 제시했기에 [윗글을 바탕으로 ~] 라는 발문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를 대응시킴에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와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속도 간의 연관”을 찾아봅시다.

==> 이미 위에서 우리는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하게 되면 “진자가 더욱 오른쪽으로 편향되어 이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위도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하므로 진자가 “더욱 오른쪽으로”, 즉 “더 많이 움직이더라도” 처음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주기는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리가 늘어나는데,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해야하므로 **진자의 진동면은 더 느리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회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사고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문과 <보기> 간의 대응관계를 명확히 찾지 못했을 경우, 시작부터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대응관계를 명확하게 발견했다라도 선지 하나하나가 그리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만일 여러분이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항을 시험장에서 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문제에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수능 시험까지 4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문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행운”입니다. 부디 27번에 녹아있었던 다양한 “사고 과정”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올해에도 여러분을 27번과 같은 방식으로 힘들게 할 테니까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문을 통한 지문구조의 예측은 불가능했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B형 <예술>

[1문단] 베토벤의 교향곡은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주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되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어둡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 낸 복잡성은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되었으며,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2문단] (질문: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1. 빈(Wien)의 청중의 음악관), (2.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3.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에 반영되었다.**

[3문단]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순수 기악이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다.

[4문단] 또한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보았으며, 호프만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 여겼다.

[5문단] 더욱이 당시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의 교향곡이 특별한 지위를 얻는 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다.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 베토벤이야말로 이러한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았다.

질문 : (~만이 ~했을까?)

답 : No.

- 빈의 청중의 음악관
-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

==>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



실제로 문단별 구분이 이루어짐.

글을 이어보자면

"베토벤의 교향곡을 19세기의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은 작품의 내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 1)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
- 2)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음악을 읽는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음.
- 3) 천재성 담론

이렇게 세 가지가 영향을 미쳤음.

지문의 구조도 명확하게 잘 보였고, 내용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매우 잘 부합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많은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2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었다.
- ② 베토벤 교향곡의 확대된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였다.
- ③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브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 ④ 베토벤 교향곡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하게 해 주었다.

==> “받아가며” 읽었다면 전부 적절한 선지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적절**합니다.

- ⑤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데에서 비롯된다.

==> 지문의 5문단에서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정답)

29. ㉠의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음악은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 “정서의 순화”라는 내용은 ㉠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②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언어이다.

==>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므로 음악은 “그 자체가 언어이다”는 내용은 ㉠의 관점과 관련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절**합니다.

-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이다.

==> 완전히 헛소리입니다. **부적절**합니다.

- ④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 “당시 청중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내용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사실 보는 순간 정답이라는 확신이 생길 만큼 쉬운 선지였습니다. (정답)

-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음악 외적 상황”은 ㉠의 관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부적절**합니다.

30. <보기>와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로시니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다.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있었다. 당대의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였다.

<보기>가 따로 지문과의 대응지점을 찾지 않아도 되었을 만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굳이 해보자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빈과 달리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이었고, 스탕달은 순수 기악의 베토벤이 아닌, 오페라의 로시니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에서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에는 베토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슐레겔은 로시니를 ‘순수 기악의 정수’를 보여 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았겠군.

==>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은 철학적”이라고 보았는데, 어찌되었든 슐레겔은 “순수 기악의 지지자” 중 한 사람이므로 당연히 로시니보다 베토벤을 높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② 호프만은 당시의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았겠군.

③ 음악을 ‘앞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④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을 뛰어넘은 것이겠군.

⑤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보려는 청중의 견해 때문이었겠군.

==> 하나같이 목적도, 깊이도 없는 내용의 선지들이었습니다.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A형과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궁금한 주된 관심사 2가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전개해 보시다.

- 1) 얼마나 “익숙함”을 느꼈는가.
- 2)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는가.

[인문] 지문의 경우, 지문의 구조에서 “익숙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글을 읽는 것도 편안했을 것입니다.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현재의 우리 입장에서는 지문을 “크게 읽는 것(구조적 측면)”과 같은 해 6월, 9월 B형의 [인문] 지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문 역시 지문의 구조에서 “익숙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항들도 모두 쉬웠습니다. 같은 해 6월과 9월에서 “문단별 구분”과 더불어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지문의 큰 틀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동일하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과학] 지문이 그 해 수능의 결정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27번 문항의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OT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문제가 압도적인 상황”을 연출해 낸 것이죠. 우리는 27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문과 <보기>간의 대응을 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①번을 지워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선지들을 지워나갔습니다. 물론 ②번이 “흔동을 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나머지를 지워내는 과정을 통해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시험장에서도 이러한 사고과정을 동일하게 연출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보자면 미리 “훈련 없이” 이러한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27번 문항을 올해 시험장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고 과정이 구체적으로 모두 녹아들어가 있었는지도 캐낸 상태이죠. 부디 단순히 “정답을 찾는” 공부가 아닌, “정답을 위한 사고 과정을 암기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27번 문항은 이러한 모든 과정의 정점에 있는 문항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에도 반드시 이러한 방식의 문제가 출제되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정답을 향한 올바른 사고 과정과 당신이 겪었을 혼돈까지도.

비록 한 해 기출문제들만을 다루어 보았지만 “정확한 글 읽기와 지문의 큰 틀, 선지의 구성 원리를 뺏속까지 체화시킨 사람”들은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비문학 영역을 넘어 문학까지도 말이죠.

“입으로 소리내어가며” 글을 읽는 방식, 우리가 고민할 때 발생했던 사고 과정을 “암기하세요.”

가상의 제자를 옆에 두고서라도 “수업을 통해 설득하세요.”

가상의 원탁을 만들어 “출제자와 마주보세요.”

이게 수능 국어의 본질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군.”이라는 확신과 함께 잠들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

By. 국어의 본질 김 승 리